

事業名 및 事業概要	工事費	工事期間	推進狀況
○ 構内 交換機 交替 · 電子式→디지털 情報交換機 · 局線 増設: 12回線→50回線	29	'92.6-8	調達應 契約依頼

11. 經營合理化

- 健全財政 運營... 財政自立度 提高
- 公益性과 企業性的 調和로운 發展 圖謀
- 事業收益 極大化
  - 市場使用料: 去來物量 및 金額의 正確한 把握으로 脫漏防止
  - 賃貸料: 賃貸物件의 擴大 및 賃貸率 提高
  - 附帶事業 擴大 開發: 廣告事業 擴大, 駐車料 徵收 等
- 合理的인 人事 및 組織管理
  - 能率的인 組織運營: 現場機能 中心의 組織改編 推進
  - 公正한 人事管理: 採用 및 昇進의 公開競爭 原則
  - 教育訓練 強化: 流通 專門人力 養成
  - 圓滿한 勞使關係 維持: 勞使關係의 安定的 發展
- 效率的인 豫算管理... 公開競爭 入札原則, 調達物品 一括購買
- 審査分析 및 内部 監査制度의 活性化
- 業務 電算化 擴大: 電算化 對象業務의 擴大 開發, 事務自動化
- 에너지 節約 積極 推進... 電氣 10%, 油類 10%
  - 冷房機 稼動 抑制: 基準溫度(28℃)遵守, 中食時間 稼動 禁止
  - 엘리베이터 運行 制限: 2臺中 1臺만 運行, 3層以下 運行 禁止
  - 1店鋪 1燈끄기 運動展開: 隔燈制 點燈, 窓側 電燈 消燈
  - 節電教育 및 弘報: 商人教育, 構内放送, 弘報物 附着

그리고 別途 油印物을 配付해 드렸습니다

만 糧穀都賣市場 引受事項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報告를 올리겠습니다.

(報告)

糧穀都賣市場 引受運營

- '88.8.3 開場된 良才洞 糧穀都賣市場은 農協(서울共販場)이 管理運營하여 왔으나
- '92.8.3부터 管理公社가 引受 管理토록 決定(서울市)

[市場概要]

- 所在地: 瑞草區 良才洞 223番地
- 開場日: '88.8.3
- 施設規模
  - 垆地: 30,027㎡(9,083坪)
  - 建物: 17,021㎡(5,148坪)... 直販場, 保管倉庫, 事務室 等
  - 糧穀保管能力: 92,000가마/80kg
- 建設費: 4,823百萬元(政府와 農協이 各 各 50%씩 負擔)
  - ※ 垆地는 替費地로 未精算
  - ※ 農協은 寄附採納 無償使用: 1988.8.3 ~ 2001.3.11(12年 8個月)
- 入住商人
  - 指定都賣會社: 3個社(農協共販場, 韓國糧穀, 大韓糧穀)
  - 仲買人: 263名(農協 100, 韓國 83, 大韓 80)
  - 賣買參加人: 57名
  - 賃貸入住者: 10個所(食堂, 賣店, 事務室 等)
- 去來物量 및 金額 (91年度)
  - 去來物量: 120,758톤(1,509,472가마/80kg)
  - 去來金額: 170,097百萬元
  - ※ 서울市 所要量의 約 10%(當初에는 30% 정도 取扱 豫想)

[管理運營 現況]

- 管理運營者: 農協(서울共販場)市場管理室

…專擔職員 4名 (用役業體 21名 別途)

·'88.8.3 開場後 3年間은 農協에서 管理 運營하고 이후는 管理公社에 移管하 는 것으로 決定

(’92.8.2까지 1年間 農協 運營管理 期間 延長)

·’92.8.3부터 管理公社가 引受하여 管理 運營토록 서울市 方針決定(’92.3.12)

○ 運營管理費 … 466,578千원 (92年度)

· 農協 및 指定都賣人 2個社가 共同 負擔

○ 市場使用料 … 市場活性化를 위하여 ’92. 8.2까지 免除

[引受準備事項]

○ 引受 準備班 構成

· 運營組織, 運營方法, 引受에 따른 問題點 및 對策 樹立

· 市場活性化를 위한 方案 講究

이상 業務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金永根 社長님 그리고 幹部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農水產物都賣市場管理公社 業務報告가 4時부터 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財務局所管 業務報告 質疑와 答辯에 時間이 많이 遲延이 된 關係로 業務報告를 늦게 하시도록 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委員들이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敏國委員님 해 주시지요.

○李敏國委員 우선 金社長님 장황한 說明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報告事項을 들으면서 피부로 느낀 것은 역시 劃一的인, 나열식 行政을 모방한 것 같은 印象과 더불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항상 어느 機關이나 報告를 할 때에 實質과 다른 이러한 報告事項을 받았을 때에 有感의 뜻을 포함합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小委員會를 構成해서 한 30餘個가 넘는 중요한 非理와 不正을

파헤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調査라 할까요, 제가 6月 18일부터 6月 29일까지 드나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과연 저희들이 2個月에 걸쳐서 열심히 調査한 나머지 社長님에게 간곡한 부탁도 드렸고, 또는 是正을 要求도 했고, 또는 非理와 不正의 溫床이라고 하는 可樂 農水產物都賣市場을 餘裕있게 잘 運營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도 분명히 걸었습니다. 단적으로 하나 質問하겠습니다. 本 市場內에는 仲買人과 賣參人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잘 압니다. 法으로 認定받는 仲買人은 店鋪를 使用하지 못하고 法으로 認定받지 못하는 賣參人은 事務室을 餘裕있게, 店鋪를 使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일전에 調査過程에서 指摘했습니다. 그 때 당시 社長께서는 “3月末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強力히 措置하겠다” 錄音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否認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그 때 당시 무슨 이야기를 더 했느냐, “4월까지 延長해도 좋으니 꼭 是正해 달라” 이렇게 附言했습니다. 오늘에 와서 法으로 認定받는 仲買人은 店鋪를 餘裕있게 使用을 하고, 法으로 認定받지 못하는 賣參人은 店鋪를 전혀 使用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答하세요.

○農水產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네,

李敏國委員님께서 말씀하신 內容은 지난 會議때 제가 整理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 時間 현재까지 약속대로 履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辨明의 餘地는 없습니다. 그러나…….

○李敏國委員 말씀 중에……. 우리 市議會에 놓고싶어 나와 있는 곳 아닙니다. 또 社長님께서 막대한 서울 1千萬 市民을 相對하는 農水產物都賣市場을 전체 責任지는 責任者로서 말의 責任을 지지 못하는 부분을 責任지겠다고 對答한 內容과 오늘의 그 結果가 一致가 안 된다고 하면 바로 財務經濟委員會 15名の 委員을 모독하는 行爲가 아니라 1千萬 市民에게 거짓을 恣行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